

민족적(民族的) 기질(氣質)과 문화적 성격이 반영되는
현대 디자인에 대한 고찰
-디자인 교육을 위한 한국의 민족, 문화적 기질의 정의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MODERN DESIGN REFLECTED NATIONAL DISPOSITION AND CULTURAL
CHARACTER

-Focused on the re-definition of Korean national disposition and cultural character for design Education-

주저자 : 최성운 (Choi, sung-woon)

경기 대학교 디자인 공예학부

공동저자 : 조은환 (Cho Eun-Hwan)

(주) 디지털 렉스 디자인 대표

I. 서론

1. 고찰 목적
2. 문화의 개념
3. 민족(民族)과 기질(氣質)의 개념
4. 디자인의 개념
5. 문화와 민족적 기질과 디자인의 관계

II. 세계 각국의 민족적 기질과 디자인

1. 독일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2. 미국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3. 스페인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4. 이탈리아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5. 스칸디나비아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III. 한국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1. 한국의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 한국 디자인의 철학적 유산
 - 2.1. 합리주의적 가치-주리철학(主理哲學)
 - 2.2. 귀납적 사고방식- 실학(實學)
3.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 유산
 - 3.1. 한국 이미지의 진실- 역동성
 - 3.2. 매쿰(McCune), 그리핑(R.Griffing) 그리고 제켈(Seckel D)의 진술-한국 미학의 단순성
 - 3.3. 고유섭 (高裕燮 1905~1944)의 진술- 필연성의 조형
 - 3.4. 한국의 기하학-솔직한 조형

IV. 결론

참고문헌

(要約)

현재 세계 시장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하고 있는 디자인 중에는 그를 생산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적 기질을 소

유하고 있다.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아, 실용주의를 포함하는 미국, 합리주의 원칙이 반영된 독일, 일상 예술이 잘 반영되어 있는 스페인 그리고 합리주의와 인상주의적인 이탈리아 디자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사회 문화적 가치와 성격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적 행위의 내면적 태도를 규제하며, 주체의 행위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문화는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가 성립된다. 따라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디자인 또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디자인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 기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디자인은 세계 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용 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디자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디자인에서도 기술적 디자인과 더불어, 한국적 아이덴티티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조형적 요소에 대한 적용이 병행(並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과 문화적 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방적 노력들이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Abstract)

Design securing a dominant position currently in the global market has shown inherent culture of each country, i.d. national disposition. For instanceness, there are Scandinavia emphasizing humanism, America adopting pragmatism, Germany reflecting the rational principle, Spain reflecting the daily art, Italian design being rationalism and impressionism. The members of society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already formed social-cultural value and character. So culture shall restrict the internal manner of social behaviour and apply pressure to the action of main body. Also cultur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social environment and each culture shall be materialized as per the disposition of the members of society.

Now korean design has been attracted lots of interests and attention from global market because it is excellent in the aspect of application capability for new technology and also suggests the image of design produced through them. Now Korean design shall run side by side the application for formative element to be recognized by technical design as well as korean identity. So clear definition for national and cultural disposition shall be required to korean design education and design development. These prescribed efforts shall be a shortcut for globalization of korean design.

(Keyword)

National disposition. Cultural character

I. 서론

1. 고찰 목적

오늘날 디자인 강국(強國)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문화적 기질(氣質)이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개발과정에 반영되어, 그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용주의(Pragmatism)를 표방했던 미국과 이탈리아의 라틴 정신과 독일의 순수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기후적 특성에 영향을 받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있다. 또한 디자인의 단순성과 간결함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디자인이 있으며, 철학적 전통과 실험정신이 강한 영국 디자인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디자인에는 해당 민족에 의해 형성된 고유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성장했던 세계시장은 이미 1980년대를 지나 과포화(過飽和) 상태 또는 침체상태에 도달해 버렸다.¹⁾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독창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물론 제품의 가격을 내림으로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처방은 기업의 경영정책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제조 단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쟁이 더욱 심해진 세계 시장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환경적 조건들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환경적 규범, 변해버린 사회적 가치 시스템, 그리고 소비 욕구의 변화는 제품디자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처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적 성장을 위한 처방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의 질적(質的) 처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기업들의 개별적인 처방 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처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인 개선보다는 질적 개선이 추구되는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볼 때, 한국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경쟁에서도 우위(優位)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한국 디자인의 표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디자인과 문화와 민족적 기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가 유럽과 디자인 선진국과 달리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들은 미국과 유럽 소비자의 기호와 일치되는 내용으로 디자인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made in Germany" 대신 "German Design"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그들이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신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인 "BMW"를 판매하는 매장에는 "BMW" 대

1) Norbert Hammer(Hg). Die stillen Designer Manager des Designs. Meilensteine. 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 Edition. 1994. p.26-27

신 "German Motors" 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BMW라는 기업 이미지와 독일 이라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킴으로서, 소비자로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결국 독일 이라는 문화와 민족적 기질과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하려는 의도로 해석 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독일 이라는 민족적 기질과 제품 마케팅이 결합되어, 보다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소유한 문화적 경향은 지역적, 민족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통된 경향이나 양식이 생겨나고, 그 범위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²⁾ 따라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와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디자인이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연구하고 이를 정립하는 것 자체는 무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인들은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명을 통해 얻어진 가치들을 디자인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차별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적 기질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①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의 관계 규명
- ② 디자인 강국의 사례연구-연구 목적의 타당성 확인
- ③ 디자인 교육을 위한 한국의 문화적 기질에 대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의 연관성(聯關性) 확인하기 위해, 이미 디자인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이후,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인 디자인 교육을 위한 불분명했던 우리들의 문화적 기질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올바른 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의 문화적 기질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문화의 개념

문화는 경험적, 심미(審美)적 그리고 규범적 문화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경험적 문화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술적 지식과,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사회적 정의를 포함하게 된다.³⁾ 두 번째는 심미적 문화로서,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규정하는 문화이며, 이러한 미(美)는 절대적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사회적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범적 문화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문화로서 가치와 규범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는 레이몬드 윌리엄스(R. Williams)가 정의한 것처럼 다차원적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⁴⁾ 결국 문화는 물질적, 정신적 유산의 총체이며, 사회화를 통해 공동의 식과 사회적 유대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는 1871년 자

2) Schapiro. M, The social base of art, in D. Shapiro ed, Social realism-Art as a weapon, Frederik Unger, 1973, P.51

3) J.V.Baldrige, 이효재, 장하진 공역, 사회학, 경문사, 1998, P.64

4) R.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1965. P.55-58

신의 저서인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란-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그리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⁵⁾ 따라서 문화는 특정한 신념체계(信念體系)이자 복합적 가치체계이며, 동시에 기술적, 미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롤랑 바르뜨(R. Barthes)는 자신의 저서 “신화론(Mythologies)”을 통해 다원적 문화 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문화적 대상을 단지 “최고의 것”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내용까지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⁶⁾

현재 우리가 직시하는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성립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 그 현실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문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특정한 개인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정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대상임으로, 그 사회를 대리(代理)하는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 결국 문화의 내용은 특정한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사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 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3. 민족(民族)과 기질(氣質)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민족(民族)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동일한 언어와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문화내용을 공유하고, 집단의 귀속감정에 따라 결합된 문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전된 신체적 특질의 유사 정도에 따라 생물학적 개념인, 인종(人種)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또한 민족은 국가에 의한 정치, 교육, 종교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체성과 동질화 과정을 보다 확장된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 민족은 국가를 형성하는 집단이며, 동일한 혈연(血緣)이라는 동일의식을 통해 공통된 문화를 만들고 역사적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특정한 민족은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과 같이 고유한 생리적 유사성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민족은 언어와 종교 그리고 관습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된 영속성(永續性)을 소유하게 된다. 그 결과 동일한 문화 현상과 사회체계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타 민족에 대해서는 이질성을 보이게 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질은 감정적인 경향이나 반응에 관계되는 성격의 한 측면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성격의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질은 성격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인격의 감정적 측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질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성향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기질은 사회적 하모니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좁은 관계 일수록 더욱 밀접한 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장기간 유지되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⁷⁾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또한 모든 개인은 고유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퍼스낼리티(Personality)

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퍼스낼리티는 이미 형성된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성격에 의해 지배 받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 퍼스낼리티는 그가 속한 사회 집단과 문화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사회적 지배를 통하여 적용하게 된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사회가 존재하고, 그 사회에는 반드시 문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게 된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동시에 문화적 존재인 셈인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은 사회적 범위 안에서 행동을 되풀 함으로서 습관을 만들고, 개인적인 성격, 능력 그리고 욕구를 소유하는 퍼스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⁸⁾ 따라서 한 개인의 기질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동질성을 획득하고, 사회에 적합한 행동적 양식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동질성은 같은 환경 안에서 사회적 성격으로 발전되는 것이며, 나아가 민족성 국민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4.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은 실용적 도구이자 동시에 사회적 도구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디자인은 “특정한 계획-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그리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⁹⁾ 여기에서 의미하는 특정한 계획은 그것이 사회적인 것 또는 개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필요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헤스켓(J. Heskett)은 디자인은 창조 발견 그리고 종합적인 정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과정이며 생산 수단이라고 하였다.¹⁰⁾ 결국 디자인은 지(知)적 사고의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빅터 파파넬(V. Papanek)은 모든 사람들은 디자이너이며, 의미 있는 질서를 생산하기 위한 인식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¹¹⁾ 따라서 디자인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요소까지 생산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예전 구동독의 호르스트 오엘케(Horst Oehlke)는 디자인은 실용적이며 도구적 능력의 대상이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며 동시에 의미 있는 인식 수용의 대상이라고 정의하였다.¹²⁾ 그의 주장에 의하면, 디자인은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적 대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디자인을 사회화과정(社會化過程)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의미를 일상 문화적 대상으로 확장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우하우스 시절에는 좋은 디자인은 제품 스스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작용해야 하며, 기능이 실용적으로 채워지며 오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였다.¹³⁾ 그 이유는 디자인은 사회적 요구와 조건에 부

8) 김대환, 사회학, 법문사, 1985, P.26-28

9) H. Eckstein, Formgebung des Nuetlichen-Marginalien zur Geschichte und Theorie des Designs, Edition Marzona, 1976, P.8-10

10) J. Heskett, Industrial Design, London 1980, P.8-12

11) V.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Human ecology and social change, 1972, P.74-82

12) 최성운, 디자인-Deslgn, 2001, 조형사, P.9

5) <http://www.encyber.com>

6)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솔 출판사, 1997, P.32

7) Ludwig Knoll, Lexikon der praktischen Psychologie, 1997 Gondrom, P.401

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단지 물질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정신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대상인 것이다.

5. 문화와 민족적 기질과 디자인의 관계

다차원적 차원에서 볼 때, 문화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대상을 모두 합쳐진 대상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디자인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은 문화인 것이다. 한스 프라이어(H. Freyer)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현실성과 규칙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며, 그것은 사회적 행위의 주체의 내면적 태도를 규제하며, 주체의 행위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이것이 바로 상호과정의 본질인 것이다. 결국 고유한 디자인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민족적 가치들이 반영되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William James)의 영향을 받은 융크(Carl Jung)는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이 인간의 마음의 기본이며, 이러한 네 가지의 유전적 소질이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강조되거나 억제됨으로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¹⁵⁾ 결국 특정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유전적 기질에 따라 네 가지 요소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강조됨으로서, 고유한 사회적 특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공통적인 형식(形式), 또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¹⁶⁾ 이것이 바로 사회의 공통된 양식(樣式) 또는 전통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그 사회를 규정하는 특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각기 다른 민족적 기질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기질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디자인 또한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디자인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민족과 문화적 기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II. 세계 각국의 민족적 기질과 디자인

현재 미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는 많은 디자인 강국들이 속해 있다. 유럽의 경우 유사한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특성과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인본주의적 디자인을 완성시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합리주의를 사회적 가치로 표방하는 독일이 좋을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 강국의 디자인 특성과 민족과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요소의 연관성(聯

關性)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단원에서는 이미 디자인 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는 나라들의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1. 독일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현재 독일 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와 같은 순수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적 가치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리주의는 비합리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배척하고, 이성적, 논리적 그리고 필연적인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합리주의는 감각적인 것을 경시(輕視)하고 수학적 인식을 원형으로 하는 논증적(論證的) 지식을 중시한다. 특히 독일 역사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에 있어 미적분법을 창시한 라이프니츠(G. Leibniz: 1646-1716)와 같은 위대한 합리주의자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독일 사회를 과학적 사고(思考)방식으로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상에서도 작은 것 까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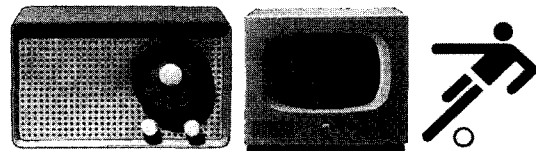


그림 1] Artur Braun, Fritz Eichler. 브라운사의 라디오. 1955

그림 2] Herbert Hirsch. 브라운사의 TV. 1958

그림 3] Ott Aicher. 문헌 올림픽 로고. 1972

특히 독일 국민들은 근면한 국민성과 정확성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디자인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라인(Line)과 볼륨(Volume)은 발견 할 수 없으며,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독일 디자인은 1907년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예술과 수공 예술과 산업을 결합하여 고급스러운 독일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결성되었던 독일공작연맹(DWB)¹⁷⁾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그들은 기계를 통한 합목적성과 양식의 단순성을 통하여 산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독일적 디자인을 추구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경향은 AEG 디자인을 담당 하였던 페터 베렌스(P. Behrens)를 거쳐, 그로피우스(W. Gropius)에 의해 설립된 바우하우스로 이어졌다. 그 이후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며, 울름 조형대학(Ulm)으로 이어졌으며, 최후에는 브라운사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디자인에서는 과도한 형식의 포기, 사실성과 기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조형적 규범들을 하나의 전통으로 유지하게 되었다.¹⁸⁾ 따라서 독일 디자인 스타일은 실질적이며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합리적이며 이성적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결국 아직까지도 독일에서는 순수모더니즘이 사회적 가치 또는 디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 중요한 정신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7) Heinrich Waetig, Wirtschaft und Kunst, Jena 1909, P.293

18) B. Mauer, Schoenheit zur Debatte industrieller Gestaltung, 1985

13) Eckstein Hans, Formgebung und Neutlichen, Duesseldorf 1985

14) Hans Freyer, Einleitung in die Soziologie, 1931

15) 주 7과 동일, P.34

16) Leopold von Wiese, Allgemeine Soziologie, Teil 1. 1976, P.19-23



그림 4) Rudolf Wilke. 헤비(HEW)사의 손잡이 디자인. 1970
 그림 5) BMW
 그림 6) Hilti사. 전동기를 위한 전동공구
 +.30

2. 미국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행동과 실행(實行)이 중심이 되는 실용주의(Pragmatism)는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이며, 이를 중심으로 미국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라그마티즘은 상식적이며, 행동적이며 동시에 현실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생활과 사회,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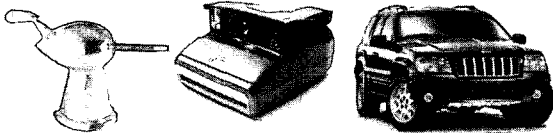


그림 7) Raymond Loewy, 1933
 그림 8) 폴라로이드 카메라 One. 2003
 그림 9) Jeep Grand Cherokee 4.0L. Chrysler.

특히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 거대한 미국이 통일되자,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분업화와 전문화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시간이 지나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가 가속화 되자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역사적 철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실용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프라그마티즘인 것이다.²⁰⁾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디자인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실용주의 철학의 도움으로 산업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의 그로피우스와 같은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²¹⁾ 결국 미국의 실용주의와 유럽의 합리주의 디자인의 결합으로 미국적 디자인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디자인은 실용주의 위주의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디자인에 있어 프라그마티즘은 인간공학과 같은 부수적 학문과 더불어 제품의 실제적 기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3. 스페인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스페인의 서고트 왕국은 711년 이슬람 움미야드 왕조의 침입을 받아 붕괴되어 그 이후 8세기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스페인 전역에는 이슬람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스페인

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75년 까지 이어진 프랑코(Franco) 총통 독재가 끝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스페인에서는 문학, 패션, 영화, 음악 그리고 디자인에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예술이라는 대상은 일상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특히 그림 11의 Tous사의 액세서리 제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 동방과 서양 문화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문화적 가치 등이 혼합되어 있어 독특한 혼합 문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예술과 문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라 교양 있는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10) 지역적, 종교적 특색이 보이는 Tous사의 액세서리 디자인
 그림 11) Tous사의 액세서리 디자인
 그림 12) 종교적 색채가 보이는 파밀리에 성당. Antonio Gaudi

스페인 디자인은 1960년 공업 디자인협회(ADIFAD)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요소들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스페인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이미지와 독일의 순수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스페인 디자인은 인상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합리주의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었다.²²⁾ 따라서 스페인의 경우 지역적 특색과 혼합문화 그리고 일상 속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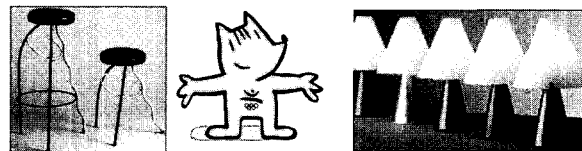


그림 13) Javier Mariscal. 의자 디자인. 1980
 그림 14) Javier Mariscal.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1992
 그림 15) Joan Casanyes. 무드렘프 코니카(Conica). 1992

특히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기업인 브라운사의 책임자 이었던 디터 램스(D. Rams)는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에 브라운사의 공장을 짓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스페인 디자인은 독일의 합리적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단편적인 이미지 보다는 복수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된다.

4. 이탈리아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²³⁾

이탈리아 문화는 라틴 정신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사실주의(寫實主義) 태도를 요구하는 리얼리즘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영향을

19) 안병욱, 현대 사상, 영신 문화사, 1958, P.88-89
 20) 주 7과 동일, p.413
 21) Thomas Hauffe, Design Schnell Kurs, Dumont, 1996, P.75

22) Bernhardt E. Buerdek, Design-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der Produktgestaltung, Dumont, 1994, P.104
 23) 한국적 디자인 응용사례연구,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통상자원부, 1996, P.41-51

받았으며, 산업 분야에서는 가족 단위 중심으로 유연성 이라는 국민성을 소유하게 되었다.²⁴⁾ 따라서 이탈리아 디자인은 최상의 산업적 조건과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 문화적 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국제적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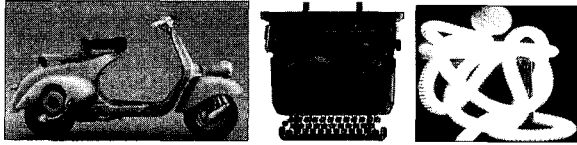


그림 16] Corridino D'Ascanio. 베스파(Vespa) 125ccm. 1946
그림 17] Ettore Sottsass, Olivetti. 발렌티네(Valentine) 타자기. 1970
그림 18] Livio Castiglioni & Gianfranco Frattini. 무드램프. 1969

특히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를 배출하였으며, 음악에서는 베르디와 로시니 그리고 푸치니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하였으며, 문화적으로 풍성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결국 이탈리아 디자인은 오랜 역사와 유연한 국민성 그리고 리얼리즘과 라틴적 이미지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희성(遊戱性)이나 즐거움에 바탕을 둔 상징적 디자인이 그 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탈리아 디자인은 합리적인 기능성과 더불어 예술성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9] Mario Bellini. Divisumma 18. Olivetti. 1972
그림 20] Alberto Meda & Paolo Rizzatto. 실내등. 1986

또한 이탈리아 디자인은 1976년도 결성된 Alchimia와 1980년도 결성된 Memphis 같은 디자인 그룹들의 실험정신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었다.²⁶⁾ 예를 들어 1990년 뎀피스를 이끌었던 에토르 소사스(Ettore Sottsass)는 디자이너는 단지 관습적인 산업적 측면에서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 입장에서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⁷⁾ 따라서 이탈리아 디자인은 관습적이지 않으며, 그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5. 스칸디나비아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²⁸⁾

스칸디나비아는 고립성이 강한 지역으로 북위 55도 이후의 북부유럽을 의미한다. 국토의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디자인 에서는 인간적이며 향토주의적 인상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은 사회학적 디자인과 합리성 그리고 기능주의를 개선하여 인본주의적 기능주의를 완성하게 된다.²⁹⁾

또한 스칸디나비아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은 인구 밀도로 인해 거대한 소비 시장을 위한 디자인 보다는 그림 22-24에서처럼 수공예적이며 전통적 이미지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모던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1907년 결성된 독일공작연맹(DWB)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독특한 향토주의적 기능주의로 발전시켰다. 결국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인본주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 그리고 생활 속에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사용자 중심의 사실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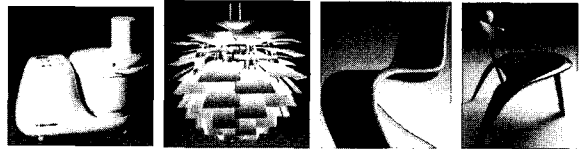


그림 21] Poul Kjaerholm. 다용도 주방기기 PK 0. 1932
그림 22] Poul Henningsen. 실내 등 디자인 1958
그림 23] Verner Ponton. 의자 디자인, 1960
그림 24] Carl Gustav Frisell. 의자 디자인(SEP 101). 1995

III. 한국의 민족,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

1. 한국의 문화적 기질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현재 디자인 강국인 이탈리아와 독일 디자인은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까지도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디자인 교육 과정에서 그들만의 문화 기질이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과 디자인의 관계가 명확하게 조명되어야 한다. 세계 시장과 디자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국 디자인에서도 이미 우리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보여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형성에 기여하는 우리들의 문화적 기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소유한 한국적 디자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한 디자인 교육을 위한 처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디자인의 철학적(哲學的) 유산(遺産)

지나간 우리들의 역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동시에 정치가들이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몰락(沒落)은 곧이어 철학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우리들의 철학은 조선 중기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철학의 발전은 기대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명맥마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철학은 인식을 문제로 삼는다. 또한 철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

24) P. Dolmer, 현대 디자인의 의미, 김동신역, 현대 미학사, 1998, P.61

25) Claudi Neumann. Design Lexikon-Italien, Dumont, 1990, P.9-10

26) 주 23과 동일, P.100

27) Ettore Sottsass, zit. bei: Nicol, Michelle, Bei Sottsass in Mailand, in: Hochparterre 1990, Nr.10

28) 주 23과 동일, P.51-57

29) Claudi Neumann. Design Lexikon-Skandinavla, Dumont, 1990, P.127

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³⁰⁾ 따라서 사회 속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철학의 몰락과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유럽 보다 앞선 위대한 철학적 유산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철학적 유산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을 정의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1. 합리주의적 가치- 주리철학(主理哲學)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대한 철학적 유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은 정이(程頤)가 주창하였고, 주희(朱熹)에 의해 완성된 성리학의 일부분이다. 물론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을 통하여 우주의 생성과 인간 심성(心性)의 구조 그리고 사회적 인간의 자세(姿勢)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하는 학문 이었다.³¹⁾ 한국의 경우 조선증기 때에 이르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에 의해 주리적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되며, 곧이어 이황(李滉)에게 계승되어 주리철학으로 그 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이(理)를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재로 인식하였던 퇴계 철학은 영남학파의 성리설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퇴계는 인간의 존재와 본질도 행동적인 면보다는 이념적인 면에서 추구하게 되며, 또한 인간의 순수이성을 절대선(絶對善)으로 추구하였다. 물론 퇴계를 합리주의 철학자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철학에는 이(理)를 중심으로 합리주의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상은 실천의 기준이 단지 이성적 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유럽의 합리주의 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퇴계(1501-1570)는 데카르트(R Descartes: 1596-1650), 스피노자(B. Spinoza: 1632-1677) 그리고 라이프니츠(G. W von Leibniz: 1646-1716)와 같은 유럽의 철학자들 보다 거의 100년 이상 앞서 출생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합리주의적 가치와 사상이 유럽보다 앞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 한국 사상은 퇴계학이 지배적이었으며, 퇴계를 이어 유성룡(柳成龍: 1542-1607)과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을 거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 -1836)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다산은 기존의 학맥에 연암파(燕巖派)의 북학(北學)사상을 접목하여 실학사상으로 집대성 하게 된다.³²⁾ 따라서 조선 중기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철학적 사상은 이성과 합리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주리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철학은 바로 합리주의적 철학인 것이며, 우리들은 이미 유럽보다 앞서 이러한 철학적 가치를 경험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질 속에는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2.2. 귀납적 사고 방식- 실학(實學)

일반적으로 실학(實學)은 조선 후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전통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학문 및 사상을 의미한다.³³⁾ 실학의 내용을

보면 18세기 후반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박제가(朴齊家)등 북학파(北學派) 실학자들이 주장하였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원리가 있다. 이용후생은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 식, 주 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추사 김정희(金正喜)를 중심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인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있으며,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익을 증진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이 있다.³⁴⁾

특히 김정희에 의해 주창된 실사구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다.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고자 했다. 그래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근대 자연과학의 기초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의 철학적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그는 연역적(deductive) 사고보다는 귀납적(Inductive) 사고 방식을 추구하였으며, 오로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³⁵⁾

일반적으로 귀납법(歸納法)은 개개의 사례를 관찰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일반 명제로 확립시키기 위한 추론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연역법(演繹法)은 단지 몇 개의 명제가 옳다는 가정 아래 다른 명제도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연역법의 문제는 이미 제시되었던 몇 개의 명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게 된다면, 커다란 오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실학에서는 연역적 차원 보다는 개개의 사실을 중심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 속에는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귀납적 철학적 논리가 학문적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3. 한국 디자인의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

3.1. 한국 이미지의 진실(眞實)- 역동성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예전 우리들의 조상들은 그림 2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진취적인 기상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우리에게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는 무용총에 수렵도에 등장하는 인물에 살펴보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지배하였던 진취적 기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진취적 입장은 장식적 요소보다는 실용적 요소와 상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속도와 전쟁을 칭송하였던 이탈리아의 미래파(未來派)의 경우 진취적이며 역동적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 단순성의 조형적 요소와 기계 미학을 추구하였다.³⁶⁾ 이는 진취적 기상으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민족적 기질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탈리아의 조형적 유산인 미래파의 역동성이 우리들의 민족성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33) 韓國史大要. 유원동 이민영 공저,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1978, P.193

34) 교양 韓國史, 韓國史編纂委員會,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7, P.189

35) 주 23과 동일, P.126-127

36) 주 33과 동일, P.252

30) <http://www.encyber.com>

31) <http://www.encyber.com>

32) 주 31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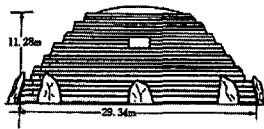


그림 25] 장군총



그림 26] 무용총 수렵도

종종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의 처마 선(線) (그림 27의 화살표)과 여인네의 버선(足依)(그림 28)을 두고 은은함이 보여지는 가장 한국적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그림 27의 경복궁에서 보여지는 처마의 선은 은은함 보다는 오히려 역동적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면에서 보이는 전체 라인(line)의 양 끝이 위로 올라가 있어 하나의 거대한 타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뉘너(Döenner V)의 주장에 의하며 이러한 수평적 관계에서는 억누르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다.³⁷⁾ 따라서 위로부터 누르는 힘과, 다시 위로 복원하려는 두개의 힘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은한 아름다움 보다는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과 강인한 역동적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28의 한국 여성을 대표하는 버선에서는 정지된 라인(Line) 보다는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운동성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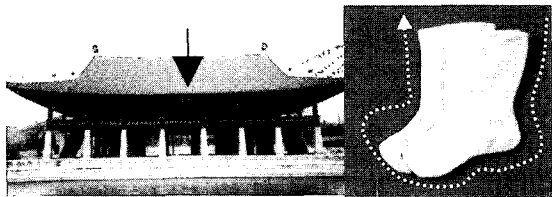


그림 27] 경복궁 경회루(慶會樓)

그림 28] 한국의 전통 버선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에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역동적 이미지가 1930년대 미국의 스트림라인 디자인(Streamlinedesign)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스트림라인 디자인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우월감(優越感)이 잘 표현 되어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대한 지배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1세대 산업 디자이너로 구별되는 레이몬드 루이(Raymond Loewy)의 디자인에서 특히 잘 보여지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은 자연으로부터 비롯되는 유기적인 디자인과 구별되어 오히려 초기 테크노 미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⁸⁾

3.2. 매쿰(E. McCune), 그리핑(R. Griffing) 그리고 제켈 (Seckel D)의 진술-한국 미학의 단순성(單純性)

37) Döenner V, & Koppelman U, Die Produktform als Mittel der Anmutungsgestaltung, Bd 2 der Beitrage zum Produktmarketing, 1976, P.178-179

38) Top Design des 20. Jahrhundert-Schöner Wohnen, Naumann & Göbel, 1990, P.52

단순성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중요한 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자기(磁器)는 주로 서민들의 식기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이 사용하는 놋그릇의 재료인 구리가 부족하여 이를 대신해서 도자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졌다.³⁹⁾ 예를 들어 그림 29는 15세기 조선의 백자이다. 이 도자기는 순백색(純白色)의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같은 시기 그림 30의 중국 도자기와 달리 전혀 가공되지 않는 순수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는 무아(無我), 무관심(無關心) 그리고 순수(純粹)라는 관념으로 연결되어 한국적 미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⁴⁰⁾

미국의 비평가인 매쿰(McCune)은 한국의 미술은 마음을 끄는 정직성이 있고, 순진하며 자연과의 신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⁴¹⁾ 또한 전 호놀룰루 미술관장인 그리핑(R. Griffing)은 한국의 미술은 건실하고 직선적이며, 겸손하여 중국의 고전주의적 인상과 일본의 기교가 보이지 않는 순수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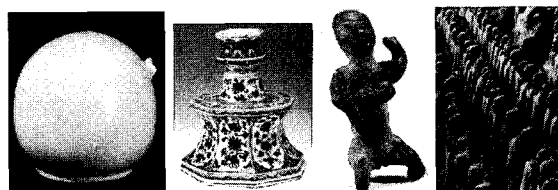


그림 29] 조선 백자:15C 그림 30] 중국 자기

그림 31] 단순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신라시대 토우

그림 32] 진시황제 무덤에서 출토된 사실적인 모습의 토우

같은 차원에서 독일의 비평가 제켈(Seckel D)은 한국적 미술의 특성에 대하여 생명력, 자연성 그리고 무관심(無關心)으로 규정하였다.⁴³⁾ 그가 주장하는 무관심은 장식에 대한 절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적 단순미는 실제로 그림 33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미술에는 의미 없는 장식과, 과장 보다는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장 중요한 조형적 가치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림 33] 세한도-제자인 역관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 김정희

3.3. 고유섭 (高裕燮 1905~1944)의 진술- 필연성의 조형

우현(又玄) 고유섭은 한국 최초 미술사학자이며, 양식적이며

39) 韓國 古美術의 理解, 김원룡,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231-232

40) 주 35와 동일, P.236

41) McCune E, the arts of Korea, Tuttle Co, 1962, P.20

42) Asia House Gallery, The of Korean Potter, The asia Society, 1968, P.13

43) Seckel D. Som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t- Original Art XXIII/1, Spring 1977, P.52-60

문헌 예술사학적인 방법을 취하고 나아가서 정신사적 미술사 방법론까지 채택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미를 “무기교의 미”라고 규정 하였으며, 장식에 대한 무관심과 자연에 대한 순응심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⁴⁴⁾ 이는 자연이 빚어낸 것과 같은 필연적 조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바우하우스의 설립자이자 기능주의자 이었던 그로피우스의 사상과 일치된다. 그는 자연에는 완전한 필연적 법칙과 재료의 정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답다고 하였기 때문이다.⁴⁵⁾ 바로 필연적 법칙에 의한 완전한 조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학자인 다나카 도요파로(田中豊太郎)는 “조선의 도자는 만들었다기 보다는 태어났다”고 하였다.⁴⁶⁾ 이 또한 완전한 자연성, 즉 필연적 조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3.4 한국의 기하학(幾何學)-솔직한 조형

한국의 아름다움을 생산하는 조형적 규범에는 반드시 기하학적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하학(幾何學)은 원, 추, 입방체 그리고 실린더와 같은 도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식, 생활(그림 34) 도구뿐만이 아니라, 경회루(그림 35)와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석탑(그림 36)에서는 완벽한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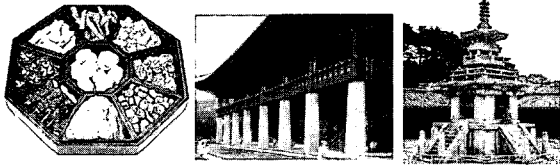


그림34] 구절판 그림35] 경회루(慶會樓) 그림36] 불국사 다보탑

이러한 미학적 특질은 몬드리안(P. Mondrian)이 주창한 신조형주의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선과 형태는 수직 수평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또한 그는 유기적인 형태는 구부러져 있거나 닫힌 형태이며, 이와 반대로 직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는 오히려 개방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기하학적 미학 또한 개방된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조형미는 감추어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솔직한 조형을 의미한다.

IV. 결론

오늘날 디자인 강국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대개 각국의 고유한 문화, 즉 민족적 기질이 잘 표현되고 있다. 현재 세계 시장은 한국의 디자인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적 이미지라기보다는 단지, 기술적 특성을 통해 생성되는 이미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디자인에서도 기술적 특성과 더불어, 한국적 아이덴

티티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조형적 요소에 대한 적용이 병행(並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의 뛰어난 적응능력과 한국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국 디자인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는 단지 외국의 디자인과 그들의 문화적 기질에 대한 정보만을 접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적 디자인을 위한 교육적 방향이 선정되지 못했었다. 단지 문화적 유산의 풍부함을 강조했을 뿐이다.

지금 까지 우리에게 전해온 철학적 유산과 문화적 유산을 통하여 볼 때, 한국적 디자인을 위한 철학은 순수 모더니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디자인의 철학적 방향이 미학적 기능주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디자인 교육을 위한 민족적 기질 또는 문화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 합리주의적(合理主義的) 가치-주리철학
- 귀납적(歸納的) 사고방식-실학
- 단순미(單純美)와 장식에 대한 무관심(無關心)
- 역동적(力動的) 이미지
- 기하학적 미학-꾸밈이 없는 솔직한 조형
- 필연성(必然性)에 의한 조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디자인 또한 세계시장에 가장 적합한 조형적 특질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기술적 가치들을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한국 또한 디자인 강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들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종종 들었다. 그것을 사실 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가치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상속된 문화적 유산과 철학적 유산이 오늘날 디자인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고유한 민족적 또는 문화적 기질이 디자인에 교육되어야 하며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철학적, 문화적 유산이 디자인을 위한 국제시장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디자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들의 문화적 성격과 철학적 가치들이 탐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산업디자인협회, 한국적 디자인 응용사례연구, 통상자원부,1996
- Asia House Gallery, The of Korean Potter, The asia Society, 1968
- Bernhardt E. Buerdek, Design-Geschichte, Theorie und Praxis der Produktgestaltung, Dumont, 1994
- B.Mauer, Schoenheit zur Debatte industrieller Gestaltung 1985
- Eckstein Hans, Formgebung und Neutlichen, 1985
- C. Neumann. Design Lexikon-Skandinavla, Dumont, 1990

44) 고유섭, 韓國古代美術의 特色과 그傳承問題, 通文館, 1963, P.6-8

45) Walter Gropius, Archietektur, 1956, P.34

46) 주 39와 동일, P.15

47) 주 12와 동일, P.68-72